

이 책의 특징

1. 연도별 기출 뽀개기

- ① 2013학년도 - 2024학년도 초등 기출분석
- ② 문항별 지문 뽀개기와 하위문항 분석
- ③ 문항별 족보를 제시해서 문제와 이론, 각론, 교과 교육론 연계

2. 반복 기출 뽀개기

- ① 문항별 족보 사이에 반복 기출문제를 테마별로 제시
- ② 테마별 기출문제 구성
 - ① 2001학년도 - 2012학년도 초등 기출문제
 - ② 중등 기출문제
 - ③ 초등특수 기출문제

3. 2024학년도 실제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및 수험생 프로토콜 제시



2024학년도

족보 뽀개기

1탄

국어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및 수험생 프로토콜」 등은 초등 임용 선생님께서 시험을 보시고,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1. 문항 번호	배점	모범 답안(예시)
1)	2점	① 기역, 디귤, 시옷 ② ㅏ, ㅑ, ㅓ, ㅕ ☞ 유의 사항 ①은 자음자의 이름 ②는 모음자를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 함
2)	2점	① ㉠은 글자의 짜임을 '초성+중성'을 지도한 후 '초성+중성+종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는 단어의 길이 즉 1음절 단어를 읽은 후 2음절 단어 읽기 위해서 ② [B]는 연음 현상이고, [C]는 경음화(된 소리되기) 이다. ☞ 유의 사항 단계별 학습 요소가 포함되게 각각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 함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1

문항 1
 국어 1) ① 기역, 디귤, 시옷
 ② ㅏ, ㅑ, ㅓ, ㅕ

2) ① ㉠은 받 받침을 사용하여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고 ㉡는 글자의 길이가 짧은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글자의 길이가 긴 단어를 사용하~~고~~ 기 위해 단어의 길이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단어를 읽게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② [B]는 연음현상이고, [C]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기준이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2

문항 1
 국어 1) ①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② ㅏ ㅑ ㅓ ㅕ ㅗ ㅛ

2) ① 자음자 모음자 + 자음자 + 자음자 의 ~~형태~~ 글자 짜임과, 모음자 모음자 모음자 글자 짜임.

② 모음자 변동 유무

● **채점 방식**
 수험생들이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 이의 신청 제도와 가채점 제도를 통해서,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유사 답안**을 출제위원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수정합니다.

● **응시자 유의 사항**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3

문항 1
 국어 1) ① 기역, 디귤, 시옷
 ② ㅏ, ㅑ, ㅓ, ㅕ

2) ① ㉠은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맞추어 두기 지도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다.
 ㉡는 단어 길이가 한 글자인 단어를 지도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다.
 ② 연음현상이 일어나는가?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4

문항 1
 국어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 ①: ㉠은 받침의 유무로, ㉡는 음절 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②: [B]는 연음법칙을 [C]는 경음화 현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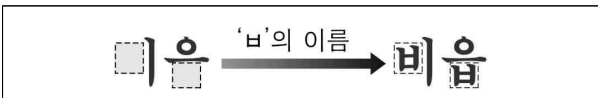
수험생 프로토콜

- 1 자음자 모음자와 관련된 수능형 문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음자의 '이름'을 적는 것을 간과하여 틀렸을 듯하다.
- 2 지문과 문제 조건을 읽고 풀면 답이 나옴
- 3 2)의 ①번 문제는 무엇을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4 국어에서 제일 당황한 문제이다. 사실 모의고사와 다르게 사고력이라 하는 문제풀이 센스가 들어간 문제였다. '초등 임용고시=암기'가 베이스긴 하지만 사고력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5년 초등 국어 기출로 알고 있는데 옛날 기출도 볼 만한 것 같다. 이중모음에 관한 문제였다. 정확한 개념이 필요했던 것 같다. 제시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서 조금 고민하다가 썼다. b는 연음현상. c는 경음화인데 이것이 기준이 뭐냐? 연음현상, 경음화는 쓰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소리의 변동 유무라고 적었는데 찝찝한 느낌이다.

2024	지문 뽀개기	A - 1
	한글 맞춤법	

(가)

박 교사: 선생님, 1학년 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정 교사: 저는 한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자음자 이름과 모음자 소릿값 익히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정 교사: 한글 교육 방법은 다양하니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 자음자 14개의 이름을 지도합니다. 이때 [그림]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자음자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림]과 같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음자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림]

박 교사: 재미있는 방법이네요.
 정 교사: 그리고 모음자 10개의 소릿값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자를 먼저 지도한 후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를 익히게 하여 모음자의 소릿값을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 교사: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께서는 단어 읽기 학습 자료도 잘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정 교사: 네, 저는 단어 읽기를 지도할 때 단어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어를 제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고 단어 읽기를 지도합니다. 2단계에서는 단어의 길이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단어를 읽게 합니다. 3단계에서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를 먼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나중에 읽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는 다시 둘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읽기를 단계적으로 연습하게 합니다.

[A]

1) (가)의 ㉠ ㉡에 해당하는 자음자의 이름을 모두 쓰고, ㉢ ㉣에 해당하는 모음자를 모두 쓰시오. [2점]

2024	문항 분석	A - 1
	한글 맞춤법	

A - 1 1)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과 같이 ‘ㅣ’ 모음을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ㄱ, ㄷ, ㅅ’도 ‘기역, 디을, 시읏’으로 해야 나머지 글자와 이름 표기에서 일관성이 있겠지만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온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문항분석】

1) (가)의 ㉠ ㉡에 해당하는 자음자의 이름을 모두 쓰고, ㉢ ㉣에 해당하는 모음자를 모두 쓰시오. [2점]

A - 1 1)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지는 모음

- (ㅑ, ㅕ, ㅓ, ㅗ, ㅛ, ㅜ, ㅠ, ㅡ, ㅣ)

【문항분석】

㉢모음자 - 이중 모음 중에서 『한글 맞춤법』 제4항과 관련된 것 찾기

(가)


정 교사: 그리고 모음자 10개의 소릿값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자를 먼저 지도한 후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를 익히게 하여 모음자의 소릿값을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 교사: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께서는 단어 읽기 학습 자료도 잘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정 교사: 네, 저는 단어 읽기를 지도할 때 단어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어를 제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고 단어 읽기를 지도합니다. 2단계에서는 단어의 길이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단어를 읽게 합니다. 3단계에서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를 먼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나중에 읽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는 다시 둘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읽기를 단계적으로 연습하게 합니다.

[A]


(나)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 봅시다.

소	자	코	파
㉠손	잠	콩	팔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 봅시다.

글	물	밤	㉡손
한글	물통	군밤	손목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 봅시다.

바람	지붕	초록	하늘
국어	놀이	민음	음악
국수	늑대	접시	책상

[B]
[C]

2) (가)의 [A]를 고려하여 정 교사가 (나)의 ① ㉠과 ② ㉡를 선정할 이유를 단계별 학습 요소가 포함되게 각각 쓰고, ③ [B]와 [C]를 나눈 기준을 쓰시오. [2점]

A - 1 2) 1단계 글자의 짜임

소	자	코	파
㉠손	잠	콩	팔

[문항분석]

① 글자의 짜임 + 단계별 학습 요소: 초성, 중성, 종성

A - 1 2) 2단계 단어의 길이

글	물	밤	㉡손
한글	물통	군밤	손목

[문항분석]

① 단어의 길이 + 단계별 학습 요소: 음절

A - 1 2) 3단계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

바람	지붕	초록	하늘
----	----	----	----

A - 1 2) 3단계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

국어	놀이	민음	음악
국수	늑대	접시	책상

① 연습

앞 음절의 종성(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

② 된소리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소쩍새, 어깨, 오 빠, 아끼다, 깨끗하다 등
2. ‘ㄴ, ㄹ, ㄹ, 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산뜻하 다, 잔뜩, 살짝 등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깎두기, 딱지, 법석, 갑자기 등

[문항분석]

②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 - 구분기준

【2022개정 총론】

한글 해독 및 익힘 지원을 위해 국어과에 34시간을 증배하였습니다.

<표 1>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82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44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224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400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506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238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2022개정 국어 읽기/쓰기/문법】

기초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체계의 하위범주 설정

범주		1~2학년	3~4학년	5~6학년
과정· 기능	읽기의 기초	· 글자, 단어 읽기 · 문장, 짧은 글 소리 내어 읽기 · 알맞게 띄어 읽기	· 유창하게 읽기	
	쓰기의 기초	· 글자 쓰기 · 단어 쓰기 · 문장 쓰기	· 문단 쓰기	
지식· 이해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 · 단어의 발음과 표기 · 문장과 문장 부호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표기와 사용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를 바르게 읽고 쓴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읽기 영역의 '읽기의 기초', 쓰기 영역의 '쓰기의 기초'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낱자, 글자, 단어, 문장'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입학 초기 기초 문식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단어를 다룰 때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부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로 학습 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를 어법에 맞게 적고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한글 학습 및 맞춤법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적인 한글 학습을 위해 문법을 지도할 때는 성취기준 설정 취지에 맞게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학습 요소를 설정한다. 또한 다양한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말놀이**나 **신체 놀이**, **수수께끼** 등 흥미로운 활동을 계획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소외되는 학습자 없이 문법 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글이나 담화 자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국어의 표기 수단인 한글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365 족보 03 | 한글 맞춤법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을)	ㅍ(피읍)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ㅃ(쌍디귤)	ㅆ(쌍비읍)	ㅉ(쌍시읏)	ㅊ(쌍치읓)
ㅄ(애)	ㅅ(애)	ㅆ(예)	ㅈ(예)	ㅊ(와)
ㅊ(외)	ㅊ(위)	ㅊ(웨)	ㅊ(위)	ㅊ(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해설]



한글 자모(字母)의 수, 순서, 이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한글 맞춤법(1988)’도 이를 이어받았다. 이 가운데 자모의 이름과 순서는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 비롯한다.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과 같이 ‘ㅣ’ 모음을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ㄱ, ㄷ, ㅅ’도 ‘기역, 디귤, 시읏’으로 해야 나머지 글자와 이름 표기에서 일관성이 있겠지만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온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 자음자 쓰기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을	피읍	히읇

반기보

반복 기출 뽀개기

4. 다음의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5년기출】
(가)

	ㅏ	ㅑ	ㅓ	...	ㅡ	ㅣ
	(아)	(야)	(어)	...	(으)	(이)
ㄱ(①)	가	갸	거	...	그	기
ㄴ(니은)	나	냐	너	...	느	니
ㄷ(②)	다	댜	더	...	드	디
ㄹ(리을)	라	랴	러	...	르	리
ㅁ(미음)	마	먜	머	...	므	미
ㅂ(비읍)	바	뵤	버	...	브	비
ㅅ(③)	사	샤	서	...	스	시
ㅇ(이응)	아	야	어	...	으	이
ㅈ(지읒)	자	쟈	저	...	즈	지
ㅊ(치읓)	차	챤	쳐	...	츠	치
ㅋ(④)	카	캬	커	...	크	키
ㅌ(⑤)	타	탤	터	...	트	티
ㅍ(피읍)	파	푼	퍼	...	프	피
ㅎ(⑥)	하	햤	허	...	흐	히

- 1) (가)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문자 지도 방법의 장점을 2가지 쓰시오.
- 2) (가)의 ①~⑥에 들어갈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정답

- (1) 문자 조직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자음과 모음의 글자 요소와 그 글자 요소의 음가를 대응시켜 발음의 규칙성을 지도할 수 있다.
- 철자에 유의하게 되므로 맞춤법 학습과 정서법 지도에도 유용하다.
- (2) ① 기역 ② 디귤 ③ 시읏 ④ 키읔 ⑤ 티을 ⑥ 히읇

총 21개
모음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으로 분류

말할 때에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로,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단모음'과 '이
중모음'으로 구분된다. 모음의 개수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모두 21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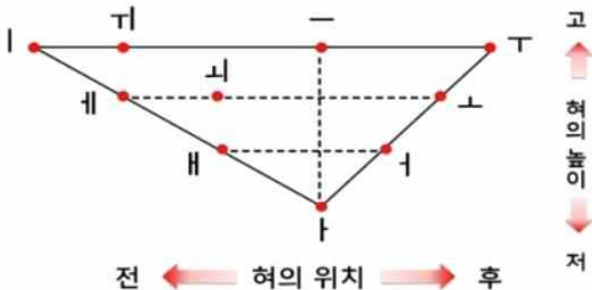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혀의 앞 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 ◆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원순모음 ◆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중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차이와 달라지는 모음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 'ㅣ'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ㅘ, ㅙ, ㅚ, ㅛ, ㅜ, ㅠ ◆ 'ㅓ'나 'ㅕ'의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 ㅖ, ㅗ, ㅛ, ㅜ, ㅠ ◆ 'ㅡ'의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 ㅝ, ㅞ

● 모음 지도 순서

- ① 단모음: ㅏ, ㅑ / ㅓ, ㅕ / ㅗ, ㅛ / ㅜ, ㅠ / ㅡ, ㅣ
- ② 이중모음: ㅘ, ㅙ / ㅚ, ㅛ
- ③ 복잡한 이중모음: ㅖ, ㅗ, ㅛ / ㅜ, ㅠ / ㅝ, ㅞ / ㅝ, ㅞ, ㅟ

모음은 단모음을 먼저 지도하고 이중모음을 지도합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홀소리로 배운 후 자음을 배울 때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글자를 만들어 익힙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중모음을 지도합니다. 복잡한 이중모음은 이미 모음의 소리를 익혔기 때문에 낱말이나 문장 속에서 가볍게 찾아보는 정도로 지도합니다. 단모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익힐수록 이중모음 소리는 자연스럽게 낼 수 있게 됩니다.

모음 삼각도의 혀의 높이, 혀의 위치를 참고하여 입모양 살피기, 입모양 만들기 활동을 지도합니다.



■ <ㅘ, ㅙ> 익히기

- 한글의 모음을 이해하기(학습자료 ①)
- <ㅘ, ㅙ>를 사물에서 찾아보고 모음자의 모양 인식하고 익히기
 - 그림에 알맞게 <ㅘ, ㅙ>를 넣어 낱말 쓰기
 - 'ㅘ'로 시작하는 낱말 떠올리기

학습자료 ①

1. 모음자 'ㅘ'가 들어가는 낱말을 써 봅시다.



약



2. 줄로 연결하여 모음자 'ㅙ'로 시작하는 낱말을 찾아 아래 빈칸에 써 봅시다.

■ <ㅚ, ㅛ> 익히기

- 한글의 모음을 이해하기(학습자료 ②)
- <ㅚ, ㅛ>를 숨은 그림에서 찾아보고 모음자의 모양 인식하기
- 낱말 판에서 <ㅚ, ㅛ>가 들어있는 낱말 찾기
- 찾은 낱말을 활용하여 빙고놀이하며 모음자 익히기

학습자료 ②

그림에 숨어 있는 ㅚ, ㅛ를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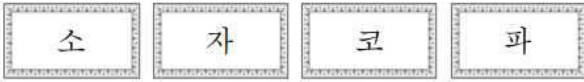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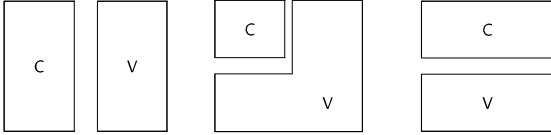
● 모음자 쓰기

① ㅘ ②	① ㅙ ② ③	① ㅚ ②	① ㅛ ② ③	① ㅜ ②
① ㅝ ② ③	① ㅞ ②	① ㅟ ② ③	① ㅡ ②	①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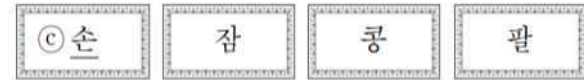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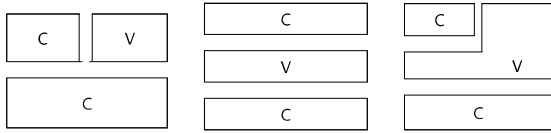
365 족보 05 | 글자의 짜임

■ 한글의 모아쓰기

- ① 한글은 '초성+중성' 또는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된다.
 • '초성+중성'의 구조



- '초성+중성+종성'의 구조



- ② 음절의 구성에서 초성은 처음 소리인 자음이고, 중성은 중간 소리인 모음, 종성은 마지막 소리인 자음을 말한다.
 ③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
 ④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는 'ㅇ'을 초성으로 쓴다. 종성으로 쓰일 때는 [ㄹ]으로 소리 난다.

365 족보 06 | 음절

※ 음절

① 음절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아침'의 '아'와 '침'은 각각이 음절인데, 이때 음절 '침'을 이루고 있는 소리 가운데 처음 소리인 자음 'ㄷ'을 초성이라고 하고 중간 소리인 모음 'ㅣ'를 중성, 마지막 소리인 자음 'ㅁ'을 종성이라 한다.

② 음절의 종류

㉠ 자음 + 모음 = 한 음절 = 개음절(열린 음절)

예)

대: 자음 ㄷ + 모음 애 = 대 : 열린 음절 = 개음절

㉡ 자음 + 모음 + 자음 = 한 음절 = 폐음절(닫힌 음절)

예)

한: 자음 ㅎ + 모음 아 + 자음 ㄴ = 한 :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구성된 닫힌 음절 = 폐음절

365 족보 07 | 받아쓰기

■ 받아쓰기 지도의 유의점

- ① 받아쓰기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해 기본적인 낱말과 문장을 제시해 연습하도록 한다.
 ② 받아쓰기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습자가 부담을 가지게 되면 국어활동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한다. 너무 어려운 글자를 받아쓰게 하여 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요소 중심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낱말을 불러 줌.)
 ③ 학습자 수준을 넘는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하면 쓰기를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해 쓰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특히 읽기능력에 비해 쓰기능력의 발달이 늦다는 점을 고려한다.
 ④ 받아쓰기 낱말은 글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해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해 점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와 낱말을 선정한다.
 [예: 음운 변동이 없는 개음절 낱말 → 음운 변동이 없는 폐음절 낱말 → 음운 변동(연음, 된소리)이 있는 폐음절 낱말]
 ⑤ 받아쓰기 낱말은 단순히 교과서 단원에 제시된 낱말을 임의로 불러주지 말고, 글자의 복잡성, 음절 수, 음운 변동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⑥ 받아쓰기는 **낱말단위(1음절 낱말에서 2음절, 3음절 낱말 순으로)에서 문장단위로 나아간다.**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니지만 같이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연음'이랍니다!

✔ 참고 연음이란?

연음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님!

**: 앞 음절의 종성(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

* 연음: 앞 음절의 종성(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

'연음'은 자음으로 끝난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 속하지는 않는답니다.

✔ 참고 연음이란?

국 국이 국에
[국] [구기] [구게]

아래 단어들을 발음해 보세요.

☑ 국 / 국이 / 국에

이때 '국이'는 앞 글자 종성(ㄱ)이 뒷글자 초성으로 이어지면서 [구기]라고 발음돼요.

또, '국에'도 앞 글자 종성(ㄱ)이 뒷글자 초성으로 이어져 [구게]라고 발음되죠. 이런 현상을 '연음'이라고 한답니다!

국어 놀이 민음 음악

- 다음은 김 교사가 ㉠과 ㉡을 듣고,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된 음운 현상을 조사한 자료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14년기출]**

'맛이'와 '굳이'는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동일하지 않다. '맛이'는 ([A])로 발음 되는데 이 음운 현상은 (B)이고, '굳이'는 ([C])로 발음되는데 이 음운 현상은 (D)이다.

정답

A : 마시 / B : 연음현상 C : 구지 / D : 구개음화

4 경음화(된소리되기)

3) 경음화(된소리되기)

경음화



: 평음이 일정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ㄷ, ㅂ, ㅅ, ㅈ ㄱ, ㄷ, ㅂ, ㅅ, ㅈ

* **경음화** : 평음이 일정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평음(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되는 것이 경음화예요.
 예를 들자면 '국밥'을 [국빽]으로 발음하는 것이랍니다.



3) 경음화(된소리되기)

- ✓ ① 받침 ㄱ, ㄷ, ㅂ 뒤 예 국밥[국빽], 꽃다발[꼴따빽], 춤지[춤찌]
- ✓ ② 어간 받침 ㄴ, ㄹ 뒤 예 신고[신꼬], 닭고[닭꼬]
- ✓ ③ 한자어의 ㄹ 받침 뒤 예 갈등[갈똥], 발달[발똥], 물질[물질]
- ✓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할꺼슬], 갈 곳[갈곳]

경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는 4가지가 있어요.

- ☑ **받침 ㄱ, ㄷ, ㅂ 뒤**
 - 국밥→[국빽]: '국'의 종성 'ㄱ' 뒤에 오는 '밥'의 초성 'ㅂ'이 'ㅂ'으로 변함
 - 꽃다발→[꼴따빽]: '꽃'이 '꼴'으로 변한 후(음절의 끝소리 규칙), '꼴'의 종성 'ㄷ' 뒤에 오는 '다'의 초성 'ㄷ'이 'ㄷ'으로 변함
 - 춤지→[춤찌]: '춤'의 종성 'ㅂ' 뒤에 오는 '지'의 초성 'ㅈ'이 'ㅈ'으로 변함
 - ☑ **어간 받침 ㄴ, ㄹ 뒤**
 - 신고→[신꼬]: 어간 '신-'의 종성 'ㄴ' 뒤에 오는 '고'의 초성 'ㄱ'이 'ㄱ'으로 변함
 - 닭고→[닭꼬]: 어간 '닭-'이 '닭'으로 변한 후(자음군 단순화), '닭'의 종성 'ㄹ' 뒤에 오는 '고'의 초성 'ㄱ'이 'ㄱ'으로 변함
- (*어간 :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 '신다, 신고, 신으면, 신어서'에서 '신-'이 어간임)

☑ **한자어의 ㄹ 받침 뒤**

- 갈등→[갈똥]: 한자어 '갈(葛)'의 종성 'ㄹ' 뒤에 오는 '등'의 초성 'ㄷ'이 'ㄷ'으로 변함
 - 발달→[발똥]: 한자어 '발(發)'의 종성 'ㄹ' 뒤에 오는 '달'의 초성 'ㄷ'이 'ㄷ'으로 변함
 - 물질→[물질]: 한자어 '물(物)'의 종성 'ㄹ' 뒤에 오는 '질'의 초성 'ㅈ'이 'ㅈ'으로 변함
-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적용 X / 허허실실, 절절하다 등)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 할 것[할꺼슬]: 어간 '하-'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오는 의존명사 '것'의 초성 'ㄱ'이 'ㄱ'으로 변함
 - 갈 곳[갈곳]: 어간 '가-'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오는 명사 '곳'의 초성 'ㄱ'이 'ㄱ'으로 변함
- (*관형사형 어미: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뒤의 명사를 꾸며줌 / 하다 + -ㄹ + 것→할 것, 가다 + -ㄹ + 곳→갈 곳)

■ **표준 발음법**

이 단원에서는 표준 발음법 23항에 중점을 두고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지도한다. 표준 발음법 23항에서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ㄷ, ㅌ), ㅂ(ㅂ, ㅃ, ㅃ, ㅃ)**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국밥’은 [국빽], ‘닭장’은 [닥짱], ‘웃고름’은 [온꼬름], ‘닭개’는 [닥개], ‘옆집’은 [엩집]으로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지도할 때 문법적 원리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뒤,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낱말의 표준 발음과 맞춤법을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즉, ‘주먹밥’은 [주먹빽], ‘먹고’는 [먹꼬] 등으로 발음해야 함을 해당 낱말들을 직접 발음하면서 깨달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여 학생들이 우리말에는 글자와 다르게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한다.

제 1절 된소리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소쩍새, 어깨, 오빠, 아끼다, 깨끗하다 등
 2. ‘ㄴ, ㄹ, ㄹ, 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잔뜩, 살짝 등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깎두기, 딱지, 법석, 갑자기 등

반기쁘 **반복 기출 뽀개기**

1. 다음의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1점] **【20년초특기출】**

단원	생각을 나타내요	
학습 목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핵심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들고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	㉠ 핵심단어와 관련된 실물사진 ㉡ 음운변동이 없는 단어나 문장을 주로 평가하며, 음운변동을 다루더라도 연음 현상이나 (㉠) 위주로 다룬다.
전개	○ 이야기를 읽고 내용 파악하기 ○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 연음 현상의 예 : 국어 • (㉠) 의 예 : 학교
정리	○ 학습 정리 및 평가하기	

정답
된소리

반기쁘 **반복 기출 뽀개기**

2. 1학년 <읽기> 시간에 김 교사는 다음의 <예문>을 활용하여 '뜻이 잘 드러나게 읽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김 교사의 지도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11년기출】**

————— <예문> —————
 며칠이 지나서 와 보니, 새는 한 마리도 ㉠ 없고 등지만 달린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

————— <보기> —————
 가. 호흡의 길이, 붙여 읽는 속도, 쉬는 지점과 쉼의 길이에 유의하여 띄어 읽도록 지도한다.
 나. 소리 내어 읽을 때 의미의 단위에 유의하며, 문장 부호의 쓰임새에 따라 알맞게 읽도록 지도한다.
 다. '시범 읽기'를 통해,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라. 뜻이 잘 드러나게 읽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예문>을 읽을 때 ㉠을 [업고]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마. <예문>은 “며칠이 지나서 √와 보니,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등지만 달린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로 읽도록 지도한다. (√ : 짧게 끊어 읽기, ∨ : 길게 끊어 읽기)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가, 라, 마
- ④ 나, 다, 마 ⑤ 나, 라,

정답 ①

해설

마. 며칠이 지나서 √ 와 보니, √ 새는 한 마리도 없고 √ 등지만 달린 나무가 √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

분절 음운(음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옴

예 자음, 모음, 반모음

비분절 음운(운소)

의미 차이는 가져오지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음

예 장단, 고저, 강약

- ☑ **분절 음운(음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옴 (예. 자음, 모음, 반모음)
- ☑ **비분절 음운(운소)**: 의미 차이는 가져오지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음 (예. 장단, 고저, 강약)

총 19개
자음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로 분류

①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조음 위치

: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
→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순음	두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소리	2) 자음의 분류 - ① 조음 위치 양순음(입술소리) ✔ 윗입술 + 아랫입술 ✔ ㅂ ㅃ ㅍ ㅁ
치조음	혀끝이 윗 몸에 닿아서 나오는 잇몸소리	2) 자음의 분류 - ① 조음 위치 치조음(잇몸소리) ✔ 윗잇몸 + 혀끝 ✔ ㄷ ㄸ ㄱ ㄴ ㄷ ㄸ ㄱ ㄴ ㄷ ㄸ ㄱ ㄴ ㄷ ㄸ ㄱ ㄴ (치조음이 제일 많음)
경구개음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오는 센입천장소리	2) 자음의 분류 - ① 조음 위치 경구개음(센입천장소리) ✔ 센입천장 + 혓바닥 ✔ ㄷ ㄸ ㄱ ㄴ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 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오는 여린 입천장소리	2) 자음의 분류 - ① 조음 위치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 ✔ 여린입천장 + 혀뒤 ✔ ㄱ ㄲ ㅋ ㆁ (후성 'ㅇ'이)
후음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청소리	2) 자음의 분류 - ① 조음 위치 후음(목청소리) ✔ 목청 사이 ✔ ㅎ

②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조음 방법

: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

→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 비음, 유음

← 안울림소리 → ← 울림소리 →

파열음	폐에 나오는 공기를 막았 다가 내는 소리	3) 자음의 분류 - ② 조음 방법 파열음 ✔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 ✔ ㅂ ㅃ ㅍ ㄷ ㄸ ㄱ ㄴ ㄷ ㄸ ㄱ ㄴ (파열음이 제일 많음)
파찰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 았다가 떼며 서서히 터뜨 리면서 마찰 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	3) 자음의 분류 - ② 조음 방법 마찰음 ✔ 좁은 곳에서 스치는 소리 ✔ ㅅ ㅆ ㅎ
마찰음	입안이나 목 청 사이의 통 로를 좁혀 그 사이로 공기 를 내보내면 서 내는 소리	3) 자음의 분류 - ② 조음 방법 파찰음 ✔ 파열+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 ㅅ ㅆ ㅈ
비음	입안의 통로 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 내면서 내는 소리	3) 자음의 분류 - ② 조음 방법 비음 ✔ 비강을 통해 나오는 소리 ✔ ㅁ ㄴ ㅇ (후성 'ㅇ'이)
유음	혀 끝을 잇몸 에 가볍게 대 었다가 떼거 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 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3) 자음의 분류 - ② 조음 방법 유음 ✔ 물 흐르는 듯한 소리 ✔ ㄹ

③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예사소리	입안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나오는 소리
된소리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폐쇄하여 내는 음
거센소리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

4) 자음의 분류 - ③ 소리의 세기

- ✔ **평음(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
- ✔ **경음(된소리)** ㄱ ㄷ ㅂ ㅅ ㅈ
- ✔ **격음(거센소리)** ㅋ ㆁ ㅊ ㅌ

← 파열음 → 마찰음 파찰음

① 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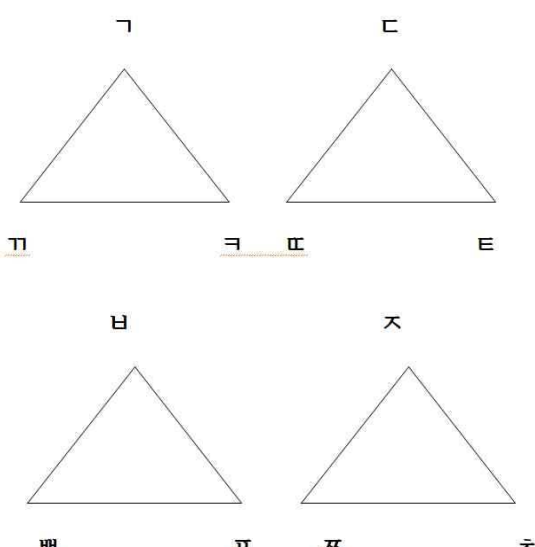
한 단어 안에 표현 가치가 다른 모음 또는 자음이 교체됨으로써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가짓말'과 '거짓말', '댕강'과 '댕경' 따위》.

② 음상의 유발 요인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으로는 음상(音相)의 차이로 인하여 표현 의미가 달라지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국어의 자음 중에서 파열음 계열은 삼중 체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하였거니와, 모음 체계도 양성파 음성으로 구별되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음상의 차이가 어감(語感)을 다르게 만든다
국어에서 모음 조화란, 알기 쉽게 말하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려는 현상이다. 이것은 발음하는 위치가 비슷한 모음끼리 결합시킴으로써 발음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파열음 계열의 삼중체계		
자 음	예사소리	보통의 느낌
	된 소리	강하고 단단한 느낌
	거센소리	더 크고 거친 느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모 음	양성모음	ㅏ, ㅑ, ㅓ, ㅕ, ㅗ
	음성모음	ㅓ, ㅖ, ㅗ, ㅛ, ㅜ

국어의 경우 삼중체계로 이뤄진 것이 아닌 것은 마찰음, 유음, 비음이다. (○)



③ 음상의 기능

- 어감의 분화
 -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 양성모음<음성모음
- 의미의 분화

1. (가)는 김 교사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이고, (나)와 (다)는 수업 자료이며, (라)는 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글이다. 1) (나)를 참조하여 한글의 모음자와 자음자의 '제자원리(製字原理)'를 설명하고, 2) ㉠에 반영된 한국어 모음의 특성과, ㉡, ㉢에 반영된 한국어 자음 체계의 특성을 논하시오.

(가) ○문상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나) 한글은 소리와 글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자음자 다섯 개, 모음자 세 개만 알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어 문자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이 절약된다.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은 하루아침이면 훈민정음을 깨칠 수 있으며,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충분히 깨칠 수 있다고 한다.

○파랳다 - 퍼렁다
○풍당풍당 - 풍덩풍덩
○소곤소곤 - 수군수군
○사각사각 - 서걱서걱
○아장아장 - 어정어정
○살랑거리다 - 설렁거리다

㉠ 단어장

(다) ㉡ 휴대 전화 자판 ㉢ 최소 대립쌍

모음의 경우,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ㅇ', 'ㅡ', 'ㅣ'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 기본 글자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합쳐 'ㅏ', 'ㅑ', 'ㅓ', 'ㅕ'와 같은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었다.

1) 자음의 경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ㅌ, ㄴ'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써서 'ㄱ, ㅋ, ㆁ'과 같은 자음자를 만들었다.

'ㄱ'와 'ㄴ'	'ㅣ'와 'ㅊ'
파랳다	퍼렁다
풍당풍당	풍덩풍덩
소곤소곤	수군수군
사각사각	서걱서걱
아장아장	어정어정

2) ㉠ :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모음조화의 원리이다.
㉡ : 한글 자음에 획을 더하는 원리이다.
㉢ : 한글 자음자 중에서 'ㄱ-ㅋ-ㆁ'과 같이 하나의 기본 글자를 두고 하나의 획을 더 그으면 거센소리가 되고 겹쳐 쓰면 된소리가 되어 서로 연관 있는 소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발음 중심 지도 방법에서는 문자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 자소-음소의 대응 원리를 먼저 터득한 뒤에 관습에 맞게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를 하고 바른 철자로 글자쓰기를 배운다.

- ① **발음중심 지도 방법**으로는 크게 자모식과 음절식을 들 수 있다.
 - ① **자모식**은 'ㄱ'에 'ㅏ'를 더하면 '가'가 되고 'ㅑ'에 'ㅣ'를 더하면 '버'가 된다는 식의 문자 지도 방법이다. 실제지도에서는 **기본 음절표**를 활용하여 'ㄱ'에 'ㅏ'를 더하면 '가'가 되며, '가'에 받침 'ㄱ'을 더하면 '각'이 된다는 식으로 지도한다.
 - ② **음절식**은 '음절법' 또는 '가갸식 지도법'이라고 한다. 한글은 자소와 음소가 1:1로 비교적 정확하게 대응을 이루는 표음 문자이다. 이는 실제 발음되는 음절을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다.

기본 음절표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의미 중심 접근 방법은 낱말이나 문장을 읽고 쓰면서 글자와 낱자를 분석적으로 접근해 한글을 익히는 방법이다. 입문기 학생들이 자주 쓰는 익숙한 문장이나 낱말을 읽고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인식해 음절 글자를 확인하고,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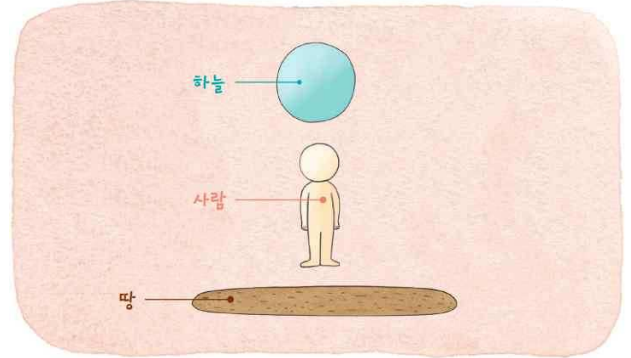
- ② **의미중심 지도 방법**으로는 크게 낱말식과 문장식을 들 수 있다.
 - ① **낱말식**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낱말을 제시**해 읽게 하고, 음절 단위로 글자를 구분하고, 글자를 분석해 낱자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친숙한 낱말을 읽고 따라 쓰는 활동으로 글자와 낱자를 익히게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낱말 읽기, 낱말 따라 쓰기, 글자 만들기, 낱자 확인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낱말을 활용해 글자의 짜임과 낱자의 소리와 모양을 익히게 된다.
 - ② **문장식**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의 기본 단위인 문장을 우선해 접근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발음과 글자를 확인하고, 문장에 사용된 낱말과 음절 글자를 분석해 한글의 낱자까지 익히게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문장 읽기, 낱말 확인하기, 글자 확인하기, 낱자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절충식 접근 방법**은 발음 중심 접근 방법과 의미 중심 접근 방법을 일정한 순서로 연결해서 한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이는 발음 중심 방법과 의미 중심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현재 교과서 구성 및 한글 해득 지도에 사용하는 절충식 접근 방법은 **의미 중심 접근 방법에서 시작해 발음 중심 방법으로 지도**하고, 다시 의미 중심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낱말식→자모식→음절식→문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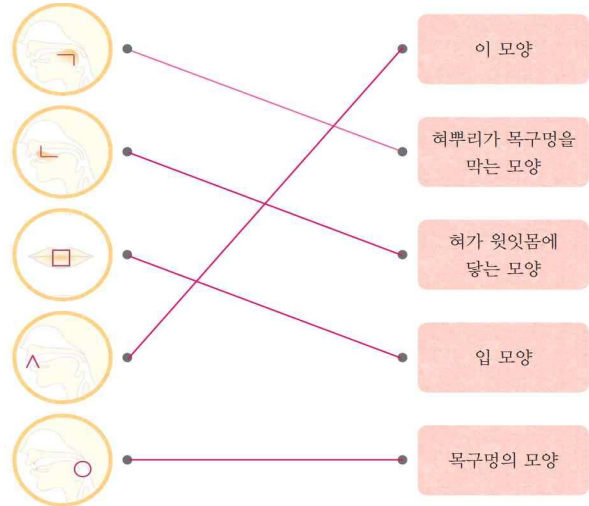
한글이 위대한 이유

박영순

첫째, 한글은 그 제자 원리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한글 모음자의 경우, 하늘, 땅, 사람을 본떠 각각 ‘ㅇ’, ‘ㅡ’, ‘ㅣ’의 기본 문자를 먼저 만들고, 이 기본 문자를 합쳐 ‘ㅏ’, ‘ㅑ’, ‘ㅓ’, ‘ㅕ’와 같은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었다.



한글 자음자의 경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ㅌ, ㄷ, ㅌ’의 기본 문자를 만들고, 이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문자를 하나 더 써서 ‘ㅋ, ㆁ’과 같은 자음자를 만들었다.



둘째, 한글은 적은 수의 문자로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음소 문자이다.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 스물네 자의 문자로 많은 음절을 적을 수 있다. 한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기본자	획을 더해 확장한 문자
ㄱ	ㅋ
ㄴ	ㄷ, ㄸ, ㄹ
ㄷ	ㅌ, ㅍ
ㅌ	ㅍ
ㅇ	ㆁ

셋째, 한글은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이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자음자 다섯개, 모음자 세 개만 익히면 다른 문자도 쉽게 익힐 수 있어 문자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이 놀랄 만큼 절약된다.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자는 ‘ㄱ, ㄴ, ㄷ, ㅌ, ㅇ’ 등과 같이 기본 문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그것들이 서로 연관 있는 소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본 자음자에 획을 더 그으면 거센소릿자가 되고 겹쳐 쓰면 된소릿자가 된다. 한글의 모음자는 소리의 변화가 없이 한 문자가 한 소리만 나타낸다. 한글의 ‘아’는 언제나 [아]로만 발음되지만, 영어의 ‘a’는 낱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영어는 발음법을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한글이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까닭에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알파벳의 꿈’이라고 표현한다.

넷째, 한글은 컴퓨터, 휴대 전화 등 기계화에 적합한 문자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통신 시대에 사용하기 좋은 ‘디지털 문자’로서 탁월하다.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에 한글로는 5초면 되는 문장을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35초가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휴대 전화의 한글 자판은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획을 더하는 원리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로버트 램지 교수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서로 체계적 연관성을 지닌 과학적인 문자”라면서 “한글 창제는 그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성취”라고 하였다. 한글의 우수성은 널리 외국에도 알려졌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 휴대 전화 자판

※ 한글의 자음자 가운데에는 규칙에 따라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ㄱ, ㄷ, ㅂ, ㅈ’과 ‘ㄴ, ㄷ, ㅃ, ㅉ’ 그리고 ‘ㅋ, ㅌ, ㅍ, ㅊ’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살펴보고,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

보기

예시 답안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 천장 소리	여린 입천 장소 리	목청 소리
파열음	예사 소리	ㅂ 바	ㄷ 다		ㄱ 가	
	된소리	ㅃ	ㄸ		ㄴ	
	거센 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 소리			ㅈ 자		
	된소리			ㅉ		
	거센 소리			ㅊ		
마찰음	예사 소리		ㅅ 서			ㅎ 해
	된소리		ㅆ			
비음		ㅁ 물	ㄴ 놀		ㅇ 이	
유음			ㄹ 러			

↳ 암기 Tip!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하러’

365 족보 15 | 음성과 음운

① 음성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같은 ‘ㄱ’이라도 ‘고기’에서 두 ‘ㄱ’은 서로 다른 소리가 되는데, 이런 하나 하나를 말한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지 못한다.

②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뿐 아니라, 장단(長短), 강세(強勢), 억양(抑揚) 등도 포함된다.

㉠ 서로 다른 소리를 같은 소리로 인식.

예) ‘고기’에서 두 ‘ㄱ’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

예) ‘달, 돌, 둘, 들’에서 ‘ㄷ, ㄴ, ㄷ, ㄴ’

‘굴, 꿀, 돌, 물, 불, 풀, 술, 줄’에서 ‘초성’

㉢ 우리글 자음.모음의 표기 하나 하나.

(자음19개, 단모음10개, 이중모음11개)

	음성	음운
공통점	음성과 음운은 모두 ‘소리’임.	
차이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인 소리로 개별 언어 사용자의 물리적 특성을 지님	음성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로,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임.

③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음운 • 자음과 모음이 해당됨.
비분절 음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마디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 • 소리의 장단, 억양 등이 있음.

365 족보 16 | 비분절 음운

① 소리의 장단

- 같은 모음을 특별히 길게 소리 냈으로써 말의 뜻을 구별함.
 예) 말[말] - 말[馬, 斗], / 눈[눈] - 눈[眼], / 벌[벌] - 벌[罰], / 밤[밤] - 밤[夜]
- 소리의 길이는 모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에서 실현됨.
- 장음(긴소리)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본래 길게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음.
 예) 한국+말: → 한국말, 함박+눈: → 함박눈

② 억양

- 음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화시켜 문장의 의미를 구별함.
- 주로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데 문장의 끝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평탄하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
-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 문장의 종류 등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예) 지금 밥 먹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됨.
 지금 밥 먹어.(↘): 부드러운 느낌의 평서문이나 청유문이 됨.
 지금 밥 먹어.(↘): 단정적이고 사무적인 느낌의 평서문이나 강한 느낌의 명령문이 됨.

1) 모음이란?

총 10개!

단모음

: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
 '니'와 '뉴'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

단모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니'와 '뉴'를 예로 들어 볼게요.

'니'를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가만히 있는 반면, '뉴'를 발음할 때 입이 움직이죠?

'니'처럼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참고로 '니'와 '뉴'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니'와 '뉴'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답니다.(표준 발음법 제4항)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키	ㄱ 위	ㅡ 를	ㅈ 주
중모음	ㅕ 게	ㅛ 되	ㅑ 었	ㅓ 소
저모음	ㅗ 내		ㅓ 가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와 같이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뉴'와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암기 Tip!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① 모음의 분류 - ① 혀의 위치

2) 모음의 분류 - ① 혀의 위치

혀의 위치

: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뉨

모음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위치에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혀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ㅣ'와 'ㅡ'를 발음해 보세요.

'ㅡ'를 발음할 때 혀가 더 뒤로 가는 게 느껴지죠?

이렇듯 혀가 앞쪽에 위치하는 'ㅣ', 'ㅕ', 'ㅛ', 'ㅑ', 'ㅓ'는 전설 모음이에요. 반면 혀가 뒤쪽에 위치하는 'ㅡ', 'ㅑ', 'ㅓ', 'ㅗ', 'ㅜ', 'ㅝ'는 후설 모음입니다

② 모음의 분류 - ② 혀의 높이

2) 모음의 분류 - ② 혀의 높이

혀의 높이

: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뉨

모음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에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번에는 'ㅡ', 'ㅣ', 'ㅓ'를 발음해 볼게요.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가 내려가죠?

혀의 위치가 높은 'ㅣ', 'ㅑ', 'ㅡ', 'ㅜ'는 고모음이에요.

혀의 위치가 중간인 'ㅕ', 'ㅛ', 'ㅑ', 'ㅝ'는 중모음이고요.

혀의 위치가 낮은 'ㅕ', 'ㅓ'는 저모음입니다

③ 모음의 분류 - ③ 입술의 모양

2) 모음의 분류 - ③ 입술의 모양

입술의 모양

: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나뉨

마지막 분류 기준은 입술의 모양이에요.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게 펴는지, 동그랗게 오므리는지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ㅓ'를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게 되죠?

그런데 'ㅓ'를 발음할 때 입술을 오므리지 않아요.

이렇게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ㅣ', 'ㅕ', 'ㅛ', 'ㅡ', 'ㅑ', 'ㅓ'는 평순 모음이에요.

반대로 입술을 오므리는 'ㅑ', 'ㅓ', 'ㅜ', 'ㅝ'는 원순 모음입니다.

4) 이중모음과 반모음

이중모음

총 17개!

: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
'ㅈ'를 발음해 보면 'ㅣ'의 입모양에서 'ㅈ'의 입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합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반모음 'ㅣ(j)' + 단모음	ㅈ, ㅊ, ㅊ, ㅊ, ㅊ, ㅊ
반모음 'ㄴ/ㄹ(w)' + 단모음	ㄴ, ㄴ, ㄹ, ㄹ
앞의 'ㄴ'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알 수 없음.	ㄴ

4) 이중모음과 반모음

반모음

: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스치는 짧은 모음
→ j계(ㅈ, ㅊ, ㅊ, ㅊ, ㅊ, ㅊ, ㅊ) / w계(ㄴ, ㄴ, ㄹ, ㄹ)

* **반모음**: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스치는 짧은 모음
'ㅈ'를 천천히 발음해 보면 '이아'로 들려요.
이때 앞에 나오는 짧은 'ㅣ'가 반모음이고 뒤에 나오는 'ㅈ'가 단모음이에요.

참고로 반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답니다.
반모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반모음 'ㅣ(j)'와 반모음 'ㄴ/ㄹ(w)'예요.
이에 따라 이중모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j계 이중모음으로 'ㅈ', 'ㅊ', 'ㅊ', 'ㅊ', 'ㅊ', 'ㅊ', 'ㅊ'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w계 이중모음으로 'ㄴ', 'ㄴ', 'ㄹ', 'ㄹ'가 있답니다.

4. (가)는 김 교사가 메모한 청각장애 학생 영수의 특성이고, (나)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 3~4학년군 '도형 영역' 교수 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5점]
【24년초특기출】

(가)

- K-WISC-V 결과 : 지능지수 76
- 1년 전부터 양측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함
- 교정 청력 : 양측 40dB HL
- 말소리 명료도가 낮음
 - '거리'를 /그리/로 발음함
 - '네모'를 /니모/로 발음함
 - '개미'를 /그미/로 발음함

1) (가)의 [A]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음 오류 특성을 혀의 높낮이 측면에서 1가지 쓰시오. [1점]

정답

조음 오류 특성은 혀의 높이와 상관없이 모두 고모음으로 발음한다

- 2, 다음은 「모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다.」를 지도하기 위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① ②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고, ③ 이를 바탕으로 모음 'ㅏ, ㅑ, ㅓ'의 상대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2점] 【19년초특기출】

최 교사: 김 선생님, 1학년 학생들에게 모음 'ㅏ, ㅑ, ㅓ'를 지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김 교사: 입술의 둥근 정도와 (①)로 구별해서 지도하는 게 좋겠지요.

최 교사: 좋은 생각이군요. 'ㅏ'와 'ㅓ'는 입술의 둥근 정도에 따라 구별하고, 'ㅑ'와 'ㅓ'는 (②)에 따라 구별하면 되겠네요.

김 교사: 네, 그렇죠. 모음 'ㅏ, ㅑ, ㅓ'도 (③)에 따라 지도하면 되지요.

정답

① 혀의 높낮이

② 'ㅏ'는 저모음, 모음 'ㅑ'는 중모음, 모음 'ㅓ'는 고모음

1) 음운 변동의 개념

음운 변동

: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 음운 변동: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

'국물'을 표기대로 발음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리하게 하거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음운 변동은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음운 변동의 종류 - ① 교체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① 교체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두음 법칙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교체는 두 음운 □와 ○가 만났을 때, ○가 다른 음운인 △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교체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된소리되기), 두음 법칙 등이 포함됩니다.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① 교체



국밥 [국빡]

이외에도 꽃[꼰], 국물[궁물], 신라[실라]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국밥'은 [국빡]으로 발음되는데요.

여기서 'ㅏ'가 'ㅑ'로 바뀌는 이유는 앞에 나온 '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도형에 대입해 보면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 + ○ → □ + △

ㄱ + ㅏ → ㄱ + ㅑ

음운 'ㅏ'가 다른 음운인 'ㅑ'로 교체되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인 거죠.

이외에도 꽃[꼰], 국물[궁물], 신라[실라] 등을 교체의 예로 들 수 있어요.

우선 '꽃'은 [꼰]으로 발음되는데, 'ㅏ'가 'ㅑ'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현상이겠죠?

'국물'의 '국'은 [궁]으로 발음되는데, 'ㄱ'이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 현상이고요.

'신라'의 '신'은 [실]로 발음되는데,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역시 교체 현상이에요.

② 음운 변동의 종류 - ② 탈락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② 탈락



탈락 :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두음 법칙

*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음운 변동의 두 번째 종류는 '탈락'입니다.

말 그대로 두 음운 □와 ○가 만났을 때, ○가 탈락해서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두음 법칙 등이 있어요.

참고로 두음 법칙은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탈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② 탈락 □+○→□

뭉 [목]

이외에도 **좋아**[조아], **솔+나무**→**소나무**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탈락의 예시로는 '뭉[목]'을 들 수 있어요.

'뭉'이 [목]으로 발음되면서 종성에 있던 'ㅅ'이 없어서 버렸죠? 이렇게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 탈락이랍니다.

또 다른 예로, '좋아'를 발음할 때 'ㅎ'이 없어지면서 [조아]로 발음되는 현상도 탈락이에요.

'솔'과 '나무'가 합쳐져 '소나무'가 될 때 'ㄹ'이 탈락하는 것도 탈락 현상의 예로 들 수 있어요.

③ 음운 변동의 종류 - ③ 첨가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③ 첨가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반모음 첨가, 'ㄴ' 첨가, 사이시옷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첨가'는 두 음운 □와 ○가 만났을 때, 새로운 음운 △가 추가되는 현상이에요.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과 반대죠? 첨가에는 반모음 첨가, 'ㄴ' 첨가, 사이시옷 현상이 있어요.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③ 첨가 □+○→□+△+○

맨입[맨닙]

이외에도 **한여름**[한녀름], **피어**[피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첨가의 예로는 '맨입[맨닙]'이 있어요.

앞말의 종성 'ㄴ'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의 'ㅣ'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돼서 [맨닙]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한여름' 역시 같은 규칙 때문에 'ㄴ'이 첨가되면서 [한녀름]으로 발음돼요.

'피어'를 발음할 때 'ㅣ'와 'ㄷ' 사이에 반모음 'ㅣ'가 첨가돼서 [피여]로 소리 나는 것도 첨가 현상의 예로 들 수 있어요.

④ 음운 변동의 종류 - ④ 축약

2) 음운 변동의 종류 - ④ 축약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격음화, 모음 축약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마지막으로 '축약'은 □와 ○가 만났을 때, 둘이 합쳐져서 새로운 음운 △가 되는 현상이에요.

축약 현상에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와 모음 축약이 해당돼요.

국화[구과]

이외에도 만형[마형], 입학[이팍]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축약의 예시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국화'는 'ㄱ'과 'ㅎ'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인 'ㅋ'이 되면서 [구과]로 소리 나고요.
 '만형'은 'ㄷ'과 'ㅎ'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인 'ㅌ'이 되면서 [마형]으로 소리 나요.
 또, '입학'은 'ㅂ'과 'ㅎ'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인 'ㅍ'이 되면서 [이팍]으로 소리 나요.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뿐이며, 다른 자음은 이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됨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7개뿐이며, 다른 자음은 이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됨
 한 글자의 종성(받침), 즉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외에 다른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위의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돼요. 이 7개 자음을 외울 때 보통 '가느다란 물방울'로 많이 외우는데요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낫 낫 낫 낫 → [남]

→ 음절의 끝소리(종성) 'ㅅ, ㅈ, ㅊ, ㅌ'이 모두 'ㄷ'으로 바뀌어 발음됨

☑ 낫, 낫, 낫, 낫
 이 글자들을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우리는 다 다르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이라는 하나의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음절 끝에 온 'ㅅ', 'ㅈ', 'ㅊ',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소리 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른답니다.

(1) 어말 또는 자음 앞

교체 전		교체 후
ㄱ, ㅋ, ㆁ	⇒	ㄱ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ㅂ, ㅍ		ㅂ

- (2)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예] 발 아래[받 아래 → 바다래] / 꽃 위[꽃 위 → 꼬뒤]
- (3)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현되지 않음. (연음 현상)
 [예] 발으로[바트로] / 꽃에[꼬체]

참고 음절 끝소리와 모음이 만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적용>

예) 꽃 + 위 → 꽃위 → 꼬뒤 뜻 0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미적용>

예) 꽃을 → 꼬출 뜻 X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음'이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자음으로 끝난 글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 앞 글자의 자음이 뒤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꽃을'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꼬출]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바로 연음이에요.
 그런데 '꽃 위'는 [꼬취]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꽃 위'가 [꽃위]가 된 후에 연음이 적용돼서 [꼬뒤]로 발음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까요?
 다행히 기준이 있어요!☺
음절 끝소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음절 끝소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 연음을 적용하면 돼요.
 위에서 예로 들었던 '꽃 위'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위'가 뜻이 있는 형태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반면 '꽃을'의 '을'은 뜻이 없는 형태소니까 연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2) 구개음화

2)구개음화

구개음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ㅊ, ㅌ'이 되는 것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 구개음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ㅊ, ㅌ'이 되는 것**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① 우선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를 만나야 해요. (*초성 'ㅇ'은 음운이 아니므로 무시함)
 예를 들어 '밭이'는 'ㅌ'과 'ㅣ'가 만나기 때문에 [바치]로 발음 되는데요. (구개음화 적용 O)
 '밭은'과 '밭에'는 'ㅣ'가 없기 때문에 [바튼], [바테]로 발음돼요. (구개음화 적용 X)

참고로, 반모음 j가 포함된 모음에는 'ㅈ, ㅊ, ㅉ, ㅊ, ㅈ, ㅊ'가 있습니다.

②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곧이'의 '이'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요.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 ㄷ, ㅌ이 실질 형태소와 만나면?



모음 'ㅣ, 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O>

예) 곧이[고지], 밭이[바치] 뜻 X



모음 'ㅣ, ㅈ'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구개음화 X>

예) 곧이어[고디어], 밭이랑[반니랑] 뜻 0

이해하기 쉽게 예문을 준비해 봤어요.
 그 말을 곧이 믿어서는 안 돼. (구개음화 O)
 곧이어 9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구개음화 X)
 여기서 '곧이'는 [고지]로,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하는데요.
 '곧이'의 경우에는 '이'에 실제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돼요.
 반면 '곧이어'의 경우, '이어'에 '앞의 말이나 행동 따위에 잇대어'라는 뜻이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구개음화 O)
 - ☑ 밭이랑에 고구마를 심었어. (구개음화 X)
- 여기서 '밭이'는 [바치]로, '밭이랑'은 [반니랑]으로 발음해요.
 '밭이'의 경우에는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고요.
 '밭이랑'의 경우, '이랑'에 '논이나 밭을 갈아 두둑하게 만든 곳'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참고 : 밭이랑 → 받이랑(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반니랑('ㄴ' 첨가) → 반니랑(비음화))

2) 구개음화

- ✔ **ㄷ + ㅍ** → **굳이[구지], 미달이[미다지]**
- ✔ **ㅌ + ㅍ** → **같이[가치], 솔이[소치]**
- ✔ **ㄷ + ㅎ + ㅍ** → **굳히다[구치다]**
- ✔ **ㄷ, ㅌ + ㅍ** → **붙여[부쳐], 달혀[다쳐]**

☑ **ㄷ + ㅣ = ㅈ + ㅣ**

- 굳이→[구지] : '굳'의 종성 'ㄷ'과 뒤의 'ㅣ'가 만나서 'ㄷ'이 [ㅈ]으로 바뀜
- 미달이→[미다지] : '달'의 종성 'ㄷ'과 뒤의 'ㅣ'가 만나서 'ㄷ'이 [ㅈ]으로 바뀜

☑ **ㅌ + ㅣ = ㅊ + ㅣ**

- 같이→[가치] : '같'의 종성 'ㅌ'과 뒤의 'ㅣ'가 만나서 'ㅌ'이 [ㅊ]으로 바뀜
- 솔이→[소치] : '솔'의 종성 'ㅌ'과 뒤의 'ㅣ'가 만나서 'ㅌ'이 [ㅊ]으로 바뀜

☑ **ㄷ + ㅎ + ㅣ → ㅌ + ㅣ = ㅊ + ㅣ**

- 굳히다→[구치다] : '굳'의 종성 'ㄷ'과 뒤의 'ㅎ'이 만나 'ㅌ'이 된 후(거센소리되기), 'ㅌ'이 뒤의 'ㅣ'와 만나서 [ㅊ]으로 바뀜

☑ **ㄷ, ㅌ + ㅍ = ㅈ, ㅊ + ㅍ**

- 붙여→[부쳐] : '붙'의 종성 'ㅌ'과 뒤의 'ㅍ'가 만나서 'ㅌ'이 [ㅊ]으로 바뀜
- 달혀→[다쳐] : '달'의 종성 'ㄷ'과 뒤의 'ㅎ'이 만나 'ㅌ'이 된 후(거센소리되기), 'ㅌ'이 뒤의 'ㅍ'와 만나서 [ㅊ]으로 바뀜

365 족보 22 | 음운 변동 - 교체

㉔ 비음화

3) 비음화

비음화

: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인 'ㄴ' 또는 'ㄹ'을 만나면 비음 'ㅇ'이 돼요.
 'ㄷ'과 'ㅂ'도 똑같이 'ㄴ' 또는 'ㄹ'을 만나면 각각 'ㄴ'과 'ㄹ'으로 바뀌고요. 이러한 현상을 '비음화'라고 해요.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성소리)
안울림 소리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					
울림 소리	평음			ㅈ		동일한 조음 위치!
	경음			ㅊ		
울림 소리	평음					ㅎ
	경음					
울림 소리	비음	ㄴ	ㄹ		ㅇ	
	유음		ㄹ			

이때 'ㄱ'이 [ㅇ]으로, 'ㄷ'이 [ㄴ]으로, 'ㅂ'이 [ㄹ]으로 바뀌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음 체계표를 확인해 보면,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 비음화

- ✔ 먹는[멍는] 국민[궁민] 깎는[깡는]
- ✔ 달는[단는] 맡며느리[만며느리]
- ✔ 입는[임는] 밤물[밤물] 앞니[암니]

비음화의 몇 가지 예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예입니다.

- ☑ 먹는→[멍는] : 종성 'ㄱ'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ㅇ]으로 바뀜
- ☑ 국민→[궁민] : 종성 'ㄱ'이 뒤의 비음 'ㄹ'을 만나 [ㅇ]으로 바뀜
- ☑ 깎는→[깡는] : 종성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ㄱ]으로 바뀐 후, 뒤의 'ㄴ'과 만나 [ㅇ]으로 바뀜

다음은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 ☑ 단는→[단는] : 종성 'ㄷ'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뀜
- ☑ 만머느리→[만머느리] : 종성 'ㄷ'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뀜

마지막으로 'ㅂ'이 비음 [ㅃ]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 ☑ 입는→[입는] : 종성 'ㅂ'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ㅃ]으로 바뀜
- ☑ 밤물→[밤물] : 종성 'ㅂ'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ㅃ]으로 바뀜
- ☑ 앞니→[압니]→[암니] : 종성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ㅃ]으로 바뀐 후, 뒤의 'ㄴ'과 만나 [ㅃ]으로 바뀜

참고 유음의 비음화 = ㄹ의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

: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 'ㄹ'은 성격이 아주 특이한데요.
자기 앞에 'ㄹ'이 아닌 다른 자음이 오는 걸 못 견뎌 한답니다.
그런데 'ㄹ'은 그다지 힘이 세지 않아서 앞에 오는 자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ㅠ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ㄹ'은 자신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자리를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ㄴ'이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유음의 비음화'를 'ㄹ의 비음화', 'ㄹ의 ㄴ 되기'라고도 부른답니다.

참고 유음의 비음화 = ㄹ의 비음화

- ✓ ㄱ+ㄹ → 독립[동닙], 백로[백노], 석류[석뉴]
- ✓ ㄴ+ㄹ → 등산로[등산노], 생산량[생산낭], 임진관[임진난]
- ✓ ㄷ+ㄹ → 몇 리[면니]
- ✓ ㄹ+ㄹ → 담력[담녁], 심리[심니], 침략[침낙]
- ✓ ㅂ+ㄹ → 십 리[심니], 입론[임논], 협력[협녁]
- ✓ ㅇ+ㄹ → 강릉[강농], 왕릉[왕농], 종로[종노]

4 유음화

4) 유음화

유음화

: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

앞에서 배웠던 '유음의 비음화'는 'ㄹ'이 [ㄴ]이 되는 것이고, '유음화'는 반대로 'ㄴ'이 [ㄹ]이 되는 것이죠.
이때 순서는 'ㄴ+ㄹ'이든 'ㄹ+ㄴ'이든 상관없어요.

4) 유음화

✓ ㄴ+ㄹ → ㄹ+ㄹ

예 권력[꺄력] 난로[날로] 논리[놀리]
신라[실라] 원래[월래] 원리[월리]

먼저 'ㄴ+ㄹ→ㄹ+ㄹ'의 예시를 볼까요?

- ☑ 권력[꺄력], 난로[날로], 논리[놀리], 신라[실라], 원래[월래], 원리[월리]
- 앞글자 종성의 'ㄴ'이 유음화로 인해 모두 [ㄹ]으로 변했어요.

4) 유음화

✓ ㄹ+ㄴ → ㄹ+ㄹ

예 칼날[칼랄] 달님[달림] 실눈[실룬]
달나라[달라라] 물놀이[물롤이]

이번엔 'ㄹ+ㄴ→ㄹ+ㄹ'의 예시를 볼게요.

- ☑ 칼날[칼랄], 달님[달림], 실눈[실룬], 달나라[달라라], 물놀이[물롤이]
- 뒷글자 초성의 'ㄴ'이 유음화로 인해 모두 [ㄹ]으로 변했네요!

참고 유음의 비음화 = ㄹ의 비음화

ㄹ과 ㄴ이 만나면?



① ㄹ+ㄴ일 땐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요! 예) 설날[설랄]

② ㄴ+ㄹ일 땐 한 마디면 유음화, 예) 신라[실라]

끊어 읽을 수 있으면 비음화예요! 예) 생산[량[생산님]]

그런데 'ㄴ'과 'ㄹ'이 만날 때, 어떤 땐 유음화(ㄴ→ㄹ)가, 어떤 땐 비음화(ㄹ→ㄴ)가 일어난다는 게 짚짚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우선 'ㄹ+ㄴ'의 순서라면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고요.

(예. 설날[설랄])

'ㄴ+ㄹ'의 순서일 때 한 마디로 읽어야 하는 경우에도 유음화가 일어나요.

(예. 신라[실라])

그리고 'ㄴ+ㄹ'의 순서일 때 끊어 읽을 수 있으면 비음화가 일어난답니다.

(예. 등산/로[등산노], 생산/량[생산님])

365 족보 24 | 음운 변동 - 교체

참고 자음 동화

자음 동화

: 음절 끝 자음과 뒤에 오는 자음이 만날 때

한쪽/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

* 자음 동화: 음절 끝 자음과 뒤에 오는 자음이 만났을 때 한 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

'자음 동화'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두 자음이 만났을 때 서로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지는 현상인데

요.

비음화와 유음화가 여기에 속해요.

자음 동화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답니다

참고 자음 동화

분류1

동화의 방향

① 순행 동화: 뒷소리가 앞소리를 닮게 됨 예) 강릉[강능], 칼날[칼랄]

② 역행 동화: 앞소리가 뒷소리를 닮게 됨 예) 국물[궁물], 얼룩말[얼롱말]

③ 상호 동화: 앞소리가 뒷소리가 서로 닮게 됨 예) 독립-[독닙]-[동닙]

먼저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상호 동화로 나눌 수 있어요.

순행 동화는 뒷소리가 앞소리를 닮게 되는 것, 즉 뒷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강릉[강능]'에서 앞글자의 종성 'ㅇ'은 비음이고, 그 영향으로 뒷글자의 초성 'ㄹ'도 비음 [ㄴ]으로 바뀌어요.

이는 순서에 거스름이 없는 순행 동화가 됩니다.

'칼날[칼랄]'도 마찬가지로 앞글자의 종성 'ㄹ'의 영향으로 뒷글자의 초성 'ㄴ'이 비음 [ㄹ]으로 변하므로 순행 동화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역행 동화는 앞소리가 뒷소리를 닮게 되는 것, 즉 앞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국물[궁물]'에서 뒷글자의 초성 'ㄱ'은 비음이고, 그 영향으로 앞글자의 종성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요.

뒷글자가 앞글자에 영향을 미치는 역행 동화가 되는 것이죠.

'얼룩말[얼롱말]'도 역시 뒷글자의 초성 'ㄹ'의 영향으로 앞글자의 종성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하므로 역행 동화에 해당해요.

상호 동화는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닮게 되는 것, 즉 둘 다 바뀌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독립[동닙]'의 경우 앞글자의 종성 'ㄱ'은 비음 [ㅇ]이 되고, 뒷글자의 초성 'ㄹ'은 비음 [ㄴ]으로 변하는데요.

앞소리와 뒷소리가 모두 비음으로 바뀌면서 서로 비슷해지기 때문에 상호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 자음 동화

분류2



동화의 정도

① **완전 동화**: 완전히 같아짐 예 물난리[물날리], 실내[실래]

② **불완전 동화**: 비슷하게 닮아짐 예 앞날[안날], 왕릉[왕릉]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도 나눌 수 있어요.

완전 동화는 앞소리와 뒷소리가 완전히 같은 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물난리'에서 '난'의 종성 'ㄴ'이 뒷소리인 'ㄹ'과 똑같은 소리로 바뀌는 것과, '실내'에서 '내'의 초성 'ㄴ'이 앞의 종성 'ㄹ'과 똑같은 소리로 바뀌는 것이 그 예시랍니다.

불완전 동화는 앞소리와 뒷소리가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앞날'에서 '앞'의 종성 'ㅍ'이 뒤의 초성 'ㄴ'과 비슷한 비음인 'ㅁ'으로 바뀌는 것과, '왕릉'에서 '릉'의 초성 'ㄹ'이 앞의 종성 'ㅇ'과 비슷한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반기쁘

반복 기출 뽀개기

1. 다음은 유음화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교사가 이 수업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중등기출】

갈날, 신라, 닳는, 읽는

교사 : 여러분, '갈날', '신라', '닳는', '읽는'을 순서대로 발음해 보세요.

학생 : [갈랄], [실라], [달른], [잉는]입니다.

교사 : 네, 잘했어요. 이 중 '갈날', '신라',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읽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유음화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작성 방법>

○ '갈날'과 '신라'에서 일어나는 유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밝히고 유음화의 방향을 각각 서술할 것.

정답

유음화는 'ㄹ'과 'ㄴ'이 인접하는 음운론적 환경에서 일어나며 '갈날'은 순행적 유음화, '신라'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해설】

- 갈날→갈랄=앞에 놓인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ㄴ'이 'ㄹ'으로 바뀌므로 순행적 유음화이다.
- 신라→실라=뒤에 놓인 'ㄹ'의 영향을 받아 앞의 'ㄴ'이 'ㄹ'으로 바뀌므로 역행적 유음화이다.

6) 두음법칙(교체)

4) 두음법칙(교체)

두음법칙

: 한자어의 첫소리(두음)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 두음법칙(교체): 한자어의 첫소리(두음)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우선 두음법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자어 첫소리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과, 첫소리에 'ㄴ, ㄹ'이 오면 'ㄴ, ㄹ'이 없어지는 탈락 현상이 있어요.

4) 두음법칙(교체)

✓ 낙원(樂園) / 쾌락(快樂)

✓ 내일(來日) / 미래(未來)

*두음법칙은 표기에도 반영됨!

*외래어에는 적용 X (라디오, 라면 등)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볼게요.

☑ 낙원(樂園) / 쾌락(快樂)

낙원의 '낙'과 쾌락의 '락'은 사실 같은 한자(樂)를 쓰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이 '락'의 초성 'ㄹ'이 단어의 첫소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어서 '낙'이 되는 것이죠.

☑ 내일(來日) / 미래(未來)

마찬가지로 내일의 '내'와 미래의 '래'도 같은 한자(來)를 쓰는 똑같은 글자인데요.

'래'의 초성 'ㄹ'이 단어의 첫소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두음법칙은 다른 음운 변동 현상과 달리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라디오, 라면 등 외래어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4. 김 교사는 겹받침 'ㄹㄱ'의 표준 발음을 지도하기 위하여 탐구 학습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09년기출】

단계	교수·학습 내용
문제의 정의	• 'ㄹㄱ'을 발음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 닭, 맑다, 늙어서 등
가설의 설정	• 'ㄹㄱ은' (가) 에 따라 다르게 발음할 것이다.
가설의 검증	• 다음 낱말들을 가설에서 고려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 굶다[극따], 굶지[극찌], 늙소[늑쏘], 늙어서[늑거서], 맑대[막따], 맑고[말꼬], 밝으니[발그니], 닭[닥], 흙[흑] • 분류한 결과에 따라 'ㄹㄱ'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리해 보자.
결론의 도출	• 가설이 옳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과 예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규칙 1 : 'ㄹㄱ'은 (나) (앞)에서 'ㄱ'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규칙 2 : 'ㄹㄱ'은 (다) (앞)에서 (라) (으)로 발음한다. - 예외 : 일부 낱말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의 적용	○ 위 결론이 다음과 같은 사례에도 적용된다. - 규칙 : 침, 밝은, 맑더라도 등 - 예외 : 읽고, 읽기 등

	(가)	(나)	(다)	(라)
①	이어지는 소리	모음	어말 또는 자음	[ㄱ]
②	이어지는 소리	모음	어말 또는 자음	[ㄹ]
③	이어지는 문자	모음자	어말 또는 자음자	[ㄱ]
④	낱말의 모양	모양이 바뀌는 낱말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	[ㄹ]
⑤	낱말의 모양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	모양이 바뀌는 낱말	[ㄱ]

정답 ①

해설

【표준 발음법 제 4장 받침의 발음】

제11항 겹받침 'ㄹㄱ, ㄹㄴ, ㄹ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읍고[읍꼬] 읍대[읍따]

2. 문항 번호	배점	모범 답안(예시)
1)	1점	분류
2)	2점	<p>① 학생 A는 쓰기 과정이 선조적이며, 학생 B는 쓰기 과정이 회귀적이기 때문이다.</p> <p>② 점검하기(또는 조정하기)를 통해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과 조정하도록 지도한다</p> <p>☞ 유의 사항</p> <p>밑줄 친 부분을 활용하여 모범 답안(예시)과 유사한 내용을 썼으면 맞게 처리함.</p>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1		
문항 2	1) 분류	
국어	2) ① 학생 A는 선조적으로 쓰기과정을 진행했고 학생 B는 회귀적으로 쓰기과정을 진행해 쓰기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② 흠이 많기를 지양해 학생이 자신이 쓸 글은 정정해볼까 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2		
문항 2	1) 분류 기준	
국어	2) ① 학생 A는 글 쓰기 단계의 순서를 고정하고 있지만 학생 B는 글 쓰기 단계의 순서를 회귀하기 때문이다.	
	② 점검하기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3		
문항 2	1) 분류 방법	
국어	2) ① ; 학생 A에 비해 학생 B는 회귀적인 글쓰기 과정을 취했기 때문이다.	
	② ; 자기점검을 통한 점검·조정하기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4	
문항 2	1) 분류
국어	
	2) ① 학생 B는 학생 A와 다르게 계획적이고 동어는 키워드로 보여준다.
	② 안개등과 사선이 쓰이는 수필의 수필
	조정하기
수험생 프로토콜	
<p>① 생각하여 쓰는 문제. 어렵진 않으나 모호한 느낌이 있음</p> <p>② 작년에 영어에서 회귀성이 나왔는데 국어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자료 해석을 먼저 해야 했는데 적성 검사같은 문제 풀이 센스가 필요했던 것 같다. 점차 시험이 변하는 것 같다.</p> <p>③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이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p>	

2024	지문 뽀개기	A - 2
	설명방법	

(가)

학생 A의 글: 약기는 나무, 금속, 가죽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우리나라 약기인 향피리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음의 변화가 다양하여 여러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둘 다 현악기이지만, 현의 수가 다르다. 서양 약기에는 바이올린, 플루트, 심벌즈 등이 있다. 약기마다 소리의 느낌이 다른데, 플루트는 맑은 느낌인 반면 호른은 웅장한 느낌을 준다.

학생 B의 글: 약기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약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다. 현악기는 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데, 가야금, 바이올린 등이 이에 속한다. 관악기는 불어서 소리를 내며, 플루트, 향피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며, 여기에는 북이나 심벌즈 등이 있다.

(나)

최 교사: 지난 시간에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학년인데도 몇몇 학생은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동일한 화제로 쓴 학생의 글을 살펴보니, 학생 A의 경우 대상과 관련한 사실이나 인상을 단편적으로 나열할 뿐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이 드러나는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학생 B의 글과 견주어 보면 이는 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임 교사: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글 쓰는 과정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서 그렇다고 설명하지요.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측면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 (가)에 제시된 두 학생의 글에 나타난 차이에 주목하여 (나)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1점]

2024	문항 분석	A - 2
	설명방법	

A - 2 1) 설명방법

① 정의

어떤 대상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설명방법
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예)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② 예시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 대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음

(예) 발효 식품의 예로는 김치, 된장, 간장, 야구르트 등이 있다

③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

두 대상의 공통점을 통해 두 대상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음

(예) 된장과 치즈는 모두 발효 과정을 거친 것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④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

두 대상의 차이점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음

(예) 폭포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분수는 물이 위로 솟구친다

⑤ 분류/구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여러 사물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예) 자동차는 연료에 따라서 디젤차, 가솔린차, 전기차로 나눌 수 있다

학생 B의 글
일정한 기준 - 약기는 연주 방법- 을 정한 뒤에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분류라고 해요.

⑥ 인과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예)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⑦ 분석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구성 요소를 밝힘으로써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복잡한 대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예) 시계는 문자판, 시침, 분침, 태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분석】
1) (가)에 제시된 두 학생의 글에 나타난 차이에 주목하여 (나)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1점]